
공모직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산학융합 R&D 활성화]
안내 자료

2023. 5.

산업통상자원부

I.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본부) 1본부장, 2차관, 1차관보, 6실, 4국, 23관, 86과, 4팀, (소속기관) 2위원회, 8원, 1기획단, 5소
- 정원 : 1,400명 (본부 971명 + 소속기관 429명)



□ '23년 예산 : 11조 737억원

(단위 : 억 원)

합 계 (총지출 기준)	110,737		
예 산	84,473	기 금	26,264
일 반 회 계	40,813	전 력 산 업 기 반 기 금	24,068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8,394	방 사 성 폐 기 물 관 리 기 금	1,78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30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409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16,957		

* 금융성 기금인 무역보험기금은 표에서 제외, 기후기금은 기재부 소관 재원으로 운용

* 기후기금 포함시 총예산 : ('22) 11조 7,485억원 → ('23) 11조 7,569억원(+84억원, +0.1%)

□ 소관법령

○ 산업부 소관 법률은 총 96개 (1차관 44 / 2차관 39 / 본부장 13)

< 산업부 소관 법률 >

구분	소관	주요법률	
1차관	산업 분야	37	■ 산업발전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뿌리산업법 등
	국표원	7	■ 국가표준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2차관	에너지 분야	39	■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등
본부장	무역·통상 분야	13	■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외무역법, 코트라법 등

Ⅱ. 주요 업무 내용

□ 현 황

-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 산학융합R&D 활성화 지원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R&D)을 통한 산·학·연 협력촉진

* 산업단지에 입주기업과 관련이 높은 분야의 대학캠퍼스를 이전하고, 기업연구소를 집적하여 학생은 기업현장을 경험하고, 기업은 부족한 청년 연구인력을 확보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R&D)의 운영 및 지원

* 산업단지 내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이 산·학·연 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회원간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발굴되는 연구개발 과제 지원

- 스마트산단 고급인력 양성 기반 조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

*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분야 기자재 및 교육환경 구축, 현장중심의 산·학·연 공동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산업단지 산학연협의체(Mini_Cluste) 구축,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산업단지 내 외국인 인력 수급 현황, 정주여건 분석 및 기업 수요에 대응한 외국인 근로자 종합대책 마련

□ 주요 내용

- 산학융합지구(전국 17개)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추진 및 주관 기관(산학융합원)·해당 지자체와의 업무협의

* 산학융합지구 :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산학융합지구 현황>

산학융합지구	산단	이전 대학
경기	반월시화	산업기술대
전북	군산	군산대, 전북대, 호원대, 군장대
경북	구미	금오공대, 경운대, 영진전문대, 구미대
전남대불	대불	목포대
충북	오송	충북대, 청주대, 충북도립대
충남당진	석문	호서대
울산	울산테크노	울산대, 울산과기원, 울산과학대
경남	창원	경상대, 경남대, 마산대
부산	미음	한국해양대
전남여수	여수	전남대
인천	송도지식정보	인하대
제주	제주첨단	제주대, 제주관광대
전남나주	나주혁신	목포대, 전남도립대
충북음성	진천·음성	청주대, 극동대
강원 원주	문막	강릉원주대
경북 경산	경산지식산업	대구카톨릭대
광주	빛그린	전남대

-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 지방이양 관련 법 개정 추진 및 대응
- 산학융합지구 기반조성 사업 추진(3개지구 조성중)
-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및 일몰평가('23.하) 대응
- 산업단지 산학연협의체(자율형MC 79개, 디지털MC 35개) 구축·운영
- 산업단지 외국인력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추진

Ⅲ. 당면 현안 과제

1. 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 지방이양

□ 개 요

- 산업집적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을 산업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 중앙지방협력회의(2.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

□ 현황 및 검토사항

- (현황) 공모 등에 따라 지자체·대학 등이 산업부장관에게 산학융합지구* 조성·지원을 요청 시, 산업부가 지정요건 검토 후 지정

*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기업연구관 등을 조성해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11년~, 총 17개 지구 선정·지원 중)

- 지정후 각 지구별로 6년간 총 120억원 국비 지원(지방비 50% 매칭)

* 기반 구축(3년): 매년 20억원(총 60억원),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3년): 매년 20억원(총 60억)

- (검토사항) 산학융합지구 내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시너지 효과 극대화 추진

- 지자체 주도로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되, 중앙과 협의를 통해 기존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했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관련 법률에 지자체가 산학융합지구 지정시 사전에 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구 난립을 방지하고, 주무부처 협의 및 재정당국의 예산 심의를 거쳐 필요시 국비 지원 추진

□ 향후 계획

- 「산업집적법」 제22조의4, 제22조의5 개정안 국회 제출(~'23.9월)

* 법률자문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률 개정안 마련

< 법률 개정안 요약 >

현행	향후
■ 공모 등에 따라 지자체·대학 등이 산업부장관에게 산학융합지구 조성 요청 → 산업부장관 지정	■ 공모 등에 따라 기초지자체·대학 등이 시·도지사에게 산학융합지구 조성 요청 → 시·도지사 지정

1. 사업개요

-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를 이전하고 기업연구관을 조성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 '산학융합 R&D활성화'를 지원('11년~)

* (예산) ('20) 111억 → ('21) 117억 → ('22) 112억 → ('23) 92억

2. 지원내용

- 각 지구별로 6년간 총 120억원 국비 지원(지방비 50% 이상 매칭)

* 기반 구축(3년): 매년 20억원(총 60억원),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3년): 매년 20억원(총 60억)

- (산학융합기반조성) 대학과 기업을 산학융합지구内に 집적 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 기업연구관, 대학 캠퍼스관, 기업지원시설 등 조성
- (산학융합촉진지원) 현장 중심 교육으로 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 (학생) 선취업-후진학 등 일·학습병행, 현장맞춤형 교육(프로젝트 lab, 산학융합 R&D),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교육 등 실시
 - (근로자)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 직무교육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기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입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 주도형 R&D지원과 기술지도 등 실시

- 지정후 6년이 경과한 13개 산학융합지구에 대해 '21년부터 2단계 산학융합촉진 지원(지구당 '21년 4억, '22년 2.5억, '23년 2.5억)

3. 추진현황 및 성과

- 총 17개 지구를 선정하여 지원(14개* 지구 조성 완료, 3개** 지구 조성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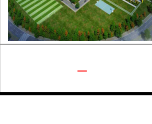
* 시화, 군산, 구미, 대불, 오송, 울산, 당진, 창원, 부산, 여수, 나주, 인천, 제주, 충북음성
 ** 강원원주, 경북경산, 광주

- 완공된 14개 지구에 29개 대학, 66개 학과, 9,543명의 학생들이 이전하고, 기업연구소, 스타트업기업 등 520개사 입주

* '22년 564건 프로젝트랩 운영, 2,010건 기업애로 해결 등

참고2

산학융합지구 조성 현황

지정	구분	사업규모 (국/지/민)	참여 지자체	참여대학	학생 (명)	특화업종	시설현황	조감도
'11년	1 시화 (혁신)	612억원 277/26/309	경기도 시흥시	(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등 6개	3,463	기계소재, 전기전자	조성위치: 시화·반월 산업단지 조성면적: 29,158㎡ 준공시점: '12.11월	
	2 군산	451억원 195/116/140	전북도 군산시	(군산대) 조선공학과 등 3개 (전북대) 자동차융합공학과 등 2개 (호원대) 자동차기계공학과 (군장대) 조선해양계열	671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조성위치: 군산 산업단지 조성면적: 16,376㎡ 준공시점: '13.9월	
	3 구미 (혁신)	421억원 183/32/206	경북도 구미시	(금오공대) 광시스템공학과 등 2개 (경남대) 바이오공학과 등 2개 (영진전문대) 컴퓨터응용기계열 등 2개 (구미대) 컴퓨터정보전자과	875	모바일, 디스플레이, 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조성위치: 구미 산업단지 조성면적: 39,351㎡ (기존시설 활용 16,439㎡) 준공시점: '14.5월	
'12년	4 대불 (혁신)	429억원 180/33/216	전남도 보포시 영암군	(목포대) 조선공학과 등 4개	335	조선해양	조성위치: 대불 산업단지 조성면적: 13,495㎡ 준공시점: '15.9월	
	5 오송	417억원 182/148/87	충북도 청주시	(충북대) 약학과 등 2개 (청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과학과	460	바이오	조성위치: 오송 산업단지 조성면적: 20,922㎡ (현물제공 9,400㎡) 준공시점: '15.3월	
	6 울산	963억원 162/252/549	울산 광역시	(울산대) 화학과 등 2개 (울산과학기술원) 경영공학과 등 3개 (울산과학기술대) 환경화학공학과	945	화학, 소재,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조성위치: 울산 산업단지 조성면적: 31,249㎡ 준공시점: '18.3월	
'13년	7 당진	432억원 172/120/140	충남도 당진시	(호서대) 제철공학과 등 4개	514	철강, 자동차, 기계소재	조성위치: 석문 산업단지 조성면적: 14,221㎡ 준공시점: '16.12월	
'14년	8 창원 (혁신)	412억원 120/70/222	경남도 창원시	(경상대) 기계융합공학과 등 2개 (경남대) 기계공학과 (마산대) 융합전자공학과	335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나노광학	조성위치: 창원 산업단지 조성면적: 13,944㎡ 준공시점: '17.11월	
'15년	9 부산	464억원 120/175/169	부산 광역시, 강서구	(한국해양대) 해양공학과 등 3개	268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조성위치: 부산 미음산업단지 조성면적: 10,000㎡ 준공시점: '19.9월	
	10 여수 (혁신)	414억원 120/45/249	전남도 여주시	(전남대) 화학생명공학과 등 5개	272	석유화학, 플랜트공정	조성위치: 여수 산업단지 조성면적: 8,094㎡ 준공시점: '19.6월	
'16년	11 니주	323억원 120/77/126	전남도 니주시	(목포대) 정보통신과 등 2개 (전남도립대) 신재생에너지과 등 2개	346	에너지, ICT	조성위치: 니주 혁신산업단지 조성면적: 6,733㎡ 준공시점: '19.9월	
	12 인천 (혁신)	600억원 120/245/235	인천 광역시	(인하대) 기계공학과 등 4개	510	항공, 자동차, 뿌리산업	조성위치: 송도 지식산업단지 조성면적: 16,524㎡ 준공시점: '20.9월	
	13 제주	296억원 120/113/63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대) 컴퓨터공학과 등 3개 (제주관광대) 멀티미디어게임과	234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제조, 화장품	조성위치: 제주 첨단과학단지 조성면적: 12,205㎡ 준공시점: '20.9월	
'19년	14 광주	399억원 120/120/159	광주시	(전남대) 지능형모빌리티융합 1개 전공	200	자동차	조성위치: 광주 빛고리국가산업단지 조성면적: 9,908㎡ 준공시점: '23.6월 예정	
	15 강원	285억원 120/80/85	강원도 원주시	(강릉원주대) ICT융복합공학과 1개	164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조성위치: 문막산업단지 조성면적: 10,218㎡ 준공시점: '24.2월 예정	
	16 경산	308억원 120/120/68	경북도 경산시	(대구가톨릭대) 화학 전기전자공학부 1개	255	건설기계, 전자	조성위치: 경산 지식산업지구 조성면적: 8,159㎡ (문화복지관 900㎡ 포함) 준공시점: '23.8월 예정	
	17 음성	356억원 120/140/96	충북도 음성군	(청주대) 에너지융합공학전공, 융합신기술대학원 (극동대) 에너지IT공학과	315	신재생에너지	조성위치: 충북진천음성산업단지 조성면적: 10,310㎡ 준공시점: '22.8월	
총계		7,582억원 (2,551/1,912/3,119)	31개	32개 학교 / 72개 학과	10,162		-	-

충북혁신도시에 에너지융복합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 기업성장과 청년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19일(수) 충북혁신도시(음성)에서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을 갖고, 에너지융복합 분야 인재양성과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개소했다.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과 관련이 높은 분야의 대학캠퍼스(학과 또는 대학원)를 이전하고 기업연구소를 집적하여, 학생은 기업현장에서 학점을 이수하면서 연구경험을 쌓고 더 나아가 취업으로 연계하고, 기업은 부족한 청년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산학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애로 해결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 준공식 개요 >

- ◇ 일시 / 장소 : '22.10.19(수) 11:00 /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북도, 음성군
- ◇ 주관: 청주대학교, 극동대학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 ◇ 참석자: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청주대·극동대 총장, 음성군수,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

- 이번에 준공된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에서는 충북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입주기업의 혁신과 에너지분야 우수 청년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충북혁신도시 중심 반경 20km 이내 위치) ① 충북혁신도시 ② 오창과학산업단지 ③ 음성 원남일반산업단지 ④ 진천산수일반산업단지 ⑤ 증평일반산업단지 ⑥ 음성성본산업단지

- 이를 위해 캠퍼스관에는 청주대학교와 극동대학교에서 에너지융복합 관련 3개학과 및 1개 대학원* 315명의 학생이 이전하여 '22년 2학기부터 지역기업과의 산학공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 청주대(에너지광기술융합학부 에너지융합공학전공, 융합신기술대학원)
극동대(에너지IT공학과, 친환경에너지공학과)

○ 또한, 기업연구관에는 에너지융복합 분야 관련 30여개 지역기업 연구소가 입주하여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11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산학융합지구를 선정*하여 지원해왔으며, 조성 완료된 13개 지구에 27개 대학 63개 학과 9,228명의 학생과 520개 기업 연구소가 산업단지내(內)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으로 각각 이전을 완료했다.

* (‘11) 반월·시화, 구미, 군산, (‘12) 오송, 대불, 울산, (‘13) 당진, (‘14) 창원, (‘15) 부산, 여수, (‘16) 인천, 제주, 나주 (‘19) 광주, 원주, 경산, 음성

○ 산학융합지구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산학융합R&D, 프로젝트 랩(LAB)*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5년간(‘17~ ‘21) 참여기업에 취업한 인원은 1,825명에 이르고, 산학공동 연구개발 1,753건 수행, 기업 기술애로 3,684건 해결 등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를 창출했다.

* 기업연구원·교수·학생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 정규 교과과정 및 기업주도 실무 실습형 Lab 운영 등

< 주요 기업지원 성과 사례 >

• (경산지구 S사: 기술실증, 취업연계) 태양광 기반 전력공급 시스템 분야 기업인 S사는 대구가톨릭대와 공동으로 산학융합R&D를 추진하여 건식안전분해를 통한 이차전지 핵심 소재 추출 실증을 완료하고, 관련기술(특허출원 6건) 확보, 이전학과 학생 2명은 S사 취업	
• (시화지구 J사: 기술개발, 매출증대) ‘15년 설립된 스타트업인 J사는 ‘21년 산학융합R&D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보급형 플라즈마 발전 시스템을 이용한 PCB 표면 실장용 세정장치 개발, 이를 통한 직접 매출액은 ‘21년 6억원이며, ‘22년은 26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준공식에서 “대학, 기업, 지자체, 정부가 협업하여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R&D) 일몰 연장 대응

□ 사업 개요

- 일몰관리혁신사업에 해당되어 3년차('23년 하반기)에 과기부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적격성을 검토하여, 연장(~30년) 또는 사업종료(~25년) 결정

□ 사업 주요현황

- (추진 경과) '05년부터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의 융합형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마케팅까지 이어지는 소주기적 기업지원
 - ▶ ('05.4) 7개 시범단지 출범, ('15.1) 전국 산업단지로 확대, ('20.12) 자율형MC 전면 전환
 - ▶ (자율형MC) 전국 79개(회원수 4,504명), (디지털MC) 30개(회원수 305명) <'22.12월 기준>
 - ▶ ('05~'22년 총 사업비) 10,632억원, ('23년 예산) 630억원
 - ▶ (지원대상)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일반기업(연구개발 참여기관)
- (산단혁신 견인) 기업간 협력R&D 지원을 통한 산단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다수의 혁신적 성과 창출
 -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7건 선정 (3건^{'15}, 2건^{'19}, 최우수, 2건^{'22})
- (우수성과 창출) 타 유사사업 대비 사업추진 성과 우수성 입증
 -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최고등급 달성 : 우수 (87.7점, '21.6)

<참고 : 국비지원금 10억원 당 유사지원사업 대비 성과비교('22년) >

구 분		동 사업	유사 사업
기술적 성과	특허출원건수	2.43건	[정부R&D 평균] 1.31
	특허등록건수	1.66건	[정부R&D 평균] 0.89
경제적 성과	사업화매출액	40.3억원	[지역혁신클러스터] 25.5, [지역산업지원사업] 28.7
사회적 성과	신규고용	29.1명	[지역혁신클러스터] 7.9, [지역산업지원사업] 6.7

□ 향후계획

- 사례 및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개편 방안 도출 및 일몰평가 대응

① 사례분석(~5월)	② 성과분석(~5월)	③ 사업개편(~6월)	④ 평가대응(8월~)
• 既수검사업 분석 • 시사점 도출 • 사업 차별성 확보	• 연장조건 이행분석 • 데이터기반 성과분석 • 고도화 전략 연계	• 정부 및 상위정책 조사 • 정책적 필요성 도출 •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대외평가(균형위 등) 대응 • 점검보고서 작성 • 점검단계별 질의서대응

참고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현황 및 일몰연장 필요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목적		■ 산업단지가 국가 및 지역경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 로의 육성
사업 내용		■ 산업단지 내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이 산학연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MC) 를 구성하고, MC 회원간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발굴되는 공동 R&BD과제 를 지원
일몰관리혁신 필요성/시급성		■ 제조업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으나, 최근 국내 주력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 ■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지역경제 전체 위기로 확대
기본요건 부합성		■ 법령상 명확한 재정투자근거가 있는 사업 ■ 국회 등 외부기관, 일몰 적정성 검토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
사업기간	현재	'05년 ~ '25년(일몰) ※ 계속과제 종료 시기 : '25년 예상
	신규(연장) 기간	당초 '25년 일몰 → ~ '30년(5년 연장)
지원 규모	기 투입	'23년까지 기투자액 11,262억원 (정부: 11,262억원 / 균특회계)
	신규 추가	약 3,033억원 ('26년~'30년) (정부: 3,033억원 / 균특회계)
추진 체계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산업단지 입주 중견·중소기업 ■ 지원조건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의거 50%이하 민간부담
수행 기관		■ (전문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부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새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2022)
		17.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23.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86.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 로 녹색경제 전환
		· 기업중심의 혁신 기반 확충으로 디지털화 및 맞춤형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
		■ 산업단지혁 혁신 종합대책 (2022)
		5.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 확충
		· 민간주도형 자율형 산학연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맞춤형 R&D지원 등
주요 성과		■ R&D지원 과제의 사업화를 통한 신규 고용 규모는 최근 5년('18~'22) 기준 8,321명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술적(우수성과100선 선정), 경제적(매출, 수출 증가), 사회적(특화산업 집적) 등 다양한 성과 실현
기대효과		■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침체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산단 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산학연 협력 R&D수행을 통해 공동혁신을 지원

1. R&BD네트워크 구축·운영

□ 사업개요

'23년 사업규모	49,123백만원	사업기간	'05년 ~ 계속
사업목적/내용	산학연 협의체(MC) 구성·운영 및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R&D 발굴 지원		
대표적 (예상)성과물	연구개발 특허의 질적향상 및 R&D사업화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		

□ 사업 핵심내용(지원내용)

-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 산단별 특화된 산업과 기술을 중심으로 자율형 산학연협의체(MC)를 구성하여 과제기획, 기술세미나, 교류회 등 공동협력 과제발굴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산학연 공동R&D 지원) 산학연협의체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에 기반한 산업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R&BD 공동과제 지원

<R&D 유형별 지원현황>

구 분			지원대상분야	지원 대상	지원 금액(년)	지원 기간
단년도	유망기업맞춤형		R&D경험이 부족한 창업, 소규모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애로 기술개발	전국 산단 단지 내 MC 참여 창업, 소기업	1억원 이내	9개월 이내
	디지털전환형		산업 전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전환을 통한 현장 애로 및 융복합 기술개발	전국 산단 디지털MC 참여기업 (2개 이상 기업)		
	혁신기업성장형		생산단계 전반에 걸친 공동 애로기술 지원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핵심기술 개발 지원	전국 산단 단지 내 MC 참여기업 (2개 이상 기업)	2억원 이내	1년 이내
다년도 중형	공동비즈니스형		산학연네트워크 활동, R&D, 공동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공동 기술애로 해소 및 협업 촉진	전국 산단 3개사 이상 컨소시엄*	4억원 이내	2년 이내
다년도 대형	대개조 산단 협업형	사전 기획	기술/기업 탐색 및 매칭, 기술분석(필요기술, 기술현황 등), 기술개발 사업화 전략수립 등	산단 대개조 계획 대상 단지 내 3개사 이상 컨소시엄*	3천만원 이내	4개월 이내
		사업화 기술개발	공동협업형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8억원 이내	2년 이내
	밸류 체인 고도화	사전 기획	산단 내 밸류체인 고도화로 상호 혁신역량 제고 가능한 기업군 발굴 및 협력모형 기획	스마트그린산단 대상 단지 내 4개사 이상 컨소시엄*	5천만원 이내	3개월 이내
		사업화 기술개발	리딩기업 중심으로 중소협력사와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 R&D		16억원 이내	2년 이내

□ 기대효과·성과

- (기술적성과) 국비10억원당 특허등록 3.29건으로 R&D 평균대비 138% ↑('22년)
- (경제적성과) R&D사업화 매출액 국비 10억원당 40.3억원 창출('22년)
- (사회적성과) 사업화를 통한 신규고용 국비 10억원당 29.1명 창출('22년)

2.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 사업개요

'23년 사업규모	10,685백만원	사업기간	'21 ~ '24년
사업목적/내용	지역내 산단 입주 기업과 타 시·도에 입지한 산단 기업 중심으로 기업 주도형 협력 기술개발 컨소시엄 과제 지원		
대표적 (예상)성과물	R&D사업화를 통한 사업화 매출액 증대 및 신규고용 창출		

□ 사업 핵심내용(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거점 간 연계 R&D 발굴·지원을 통한 선도산단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산업의 업종 경쟁력에 기여
- (지원내용)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과제별 2년 이내 / 지정공모)
-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최대 5억원 내외 지원 (국비 기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시 최대 7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 * 산·산 컨소시엄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로 기업,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 (지원대상)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지정)	거점단지	연계단지	지역
경기	반월시화(국)	성남(일), 화성발안(일)	판교테크노밸리
경남	창원(국)	사천(일), 김해(일), 함안(일)	
부산	명지녹산(국)	신평장림(일), 사상(일)	지사경자구역, 에코델타시티
울산	미포(국)	테크노(일), 매곡(일)	친환경자동차벨트
전북	군산(국)	익산제2(일), 완주과학(일), 새만금(일)	
충북	청주(일)	오송생명(국), 오창과학(일), 옥산(일)	
충남	천안제3(일)	인주(일), 아산테크노밸리(일)	강소연구개발특구
전남	대불(국)	삼호(일), 화원(농·일), 삽진(일)	
대전	대전(일)	대덕연구개발특구(국),	충남대, 한남대
경북	포항(국)	경주외동(일) 영천첨단부품(일), 포항철강(일)	

□ 기대효과·성과

- (경제적성과) 조기사업화를 위한 R&D지원으로 높은 사업화 성과 기대
- (사회적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밸류체인 고도화 R&BD(舊.탄소중립형 선도산단 혁신역량강화)

□ 사업개요

'23년 사업규모	1,000백만원	사업기간	'23 ~ '25년
사업목적/내용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육성		
대표적 (예상)성과물	연구개발 특허의 질적향상 및 R&D사업화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		

□ 사업 핵심내용(지원내용)

- (지원내용) 스마트그린 산단 내 중견(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중소협력사와 수요 대기업이 협력 R&D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발굴·해결 하기 위한 사전기획 및 기술개발 과제 지원
 - (1단계:사전기획) 밸류체인 고도화로 상호 혁신역량 제고 가능한 R&BD 사업기획 (5천만원 이내, 국비 기준)
 - (2단계:사업화 기술개발) 리딩기업 중심으로 중소협력사와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 기술개발(8억원/연간 이내, 2년간, 국비 기준)
- (지원조건) 대상 스마트그린산단* 내 사업장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지역 산단별 주력산업(업종) 육성을 위한 컨소시엄
 - * 혁신역량 분석을 통하여 대기업이 분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활동이 활발하여 밸류체인고도화 R&BD 수행이 적합한 산단을 선정('23년 5개, 경남창원, 경북 구미, 광주 첨단, 울산 미포, 전북 군산)
 - (지원대상) 대상 스마트그린산단 주력산업(업종) 분야 입주기업

대상산단	주력산업(업종)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능형 기계, 로봇산업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5G기반 선도형 소재·부품·장비 및 전자융합산업
광주 첨단 국가산업단지	AI기반 미래형 자동차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자동차, 조선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	미래지능형기계, 스마트농생명·식품, 조선해양·에너지, 탄소·복합소재

□ 기대효과·성과

- (기술적 성과) 산단 기업 간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통한 스마트그린산단 전략산업 육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
- (경제적 성과) 스마트그린산단 실효성 제고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3. 산업단지 외국인력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배경 및 추진현황

- (배경)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22.11.13) 후속조치로 산업단지내 외국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인력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산업부(실태조사·정주여건 등), 고용부(체류기간, 능력향상 등), 법무부(체류기간 등)

- (추진현황) ① 국가산단 외국인력 현황 전수조사 실시

* 조사내용('22.9~'22.11): 33개 국가산단 34,957개사 대상 외국인 근로자수, 향후 고용의향, 연령별 현황, 애로 등 조사

- ② 외국인력 업무 유관기관* 방문(~'22.2월) 현황파악 및 업무협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8개

- ③ 일반·농공단지* 외국인력 현황 전수조사 용역 추진*

* 용역사/용역기간: 메트릭스/3.2~5.31 (전국 1,179개 일반·농공단지 51,226개사 대상)

□ 개선방향

- ① (인원별 쿼터제 완화) 산업단지 실태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추가 고용이 필요한 산단업종, 대상산단 등을 도출하고 쿼터제 완화 방안 마련

- ② (외국인력 채용절차 간소화) 전문가 자문, 산단 입주기업 심층 인터뷰를 통해 채용절차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소요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등 검토

- ③ (준숙련인력 도입) 비전문인력(E-9)내에 준숙련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산업단지내 도입 검토하여 숙련 활용 및 장기활용 강화

- ④ (체류자격 변경시 혜택 부여)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E9→E-7-4)심사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이 필요한 비수도권 산단 및 업종 검토

* E9(비전문인력, 최대 4년10개월, 출국후 1회 재입국 가능) → E-7-4(숙련기능인력, 2년마다 계약 갱신)

- ⑤ (외국인력 정주여건 강화) 산단 대개조 사업 등 국가지원사업과 연계 하여 산업단지내 외국인력 기숙사·복합문화센터 설립 등 정주여건 개선

□ 향후계획(안)

- 일반산단·농공단지에 대한 외국인력 실태 전수조사 및 전문가 자문, 현장 심층 인터뷰를 거쳐 개선방안 도출(~'23.5)

- 산업단지 외국인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고용부·법무부 업무 협의('23.6~)